



즉시 배포용: 2019년 7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담배와 전자담배 판매 하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서명**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으로 인한 건강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주지사의 포괄적 노력의 일환*

**Cuomo 주지사: "흡연 가능 연령을 18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여, 우리는 젊은이들이 담배나 전자담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뉴욕 주민의 일정 연령대 전체가 값비싸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담배 및 전자 담배 판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S.2833/A.558)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으로 인한 건강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주지사의 포괄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해당 법안은 제정 120일 후 발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십대 청소년과 어린이 흡연을 몰아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무책임한 기업 마케팅으로 인해 담배와 전자 담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흡연 가능 연령을 18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여, 우리는 젊은이들이 담배나 전자담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뉴욕 주민의 일정 연령대 전체가 값비싸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흡연은 뉴욕 주민에게 해롭고, 암과 심각한 건강 문제,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매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한다면, 더욱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이 치명적인 습관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지지하고 뉴욕 주민들이 평생의 중독이나 건강 문제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신 Diane Savino 뉴욕주 상원의원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하원의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 다수당은 뉴욕주 젊은이들의 건강과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어린아이들이 중독적이고 위험한 담배 및 전자 담배를 피웁니다. 법안을 지지한 Linda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의 노고 덕분에, 이 법안이 법적 담배 구매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학교에서 이러한 제품을 내몰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우리 젊은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Diane Sav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과거 흡연자로서, 저는 이러한 제품이 얼마나 중독적일 수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입법자로서, 저는 좋은 공공 정책이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이러한 제품으로부터 우리의 젊은이들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Linda B.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배 대기업과 흡연 산업 일당들은 젊은이들을 니코틴에 중독시켜 그들의 사업을 성장시켰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흡연 연력을 21세로 상향 조정한다면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이 니코틴에 중독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다른 카운티로 가서 위험하고 매우 중독적인 담배 혹은 전자 담배를 구매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 계속 함께 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2012년 미국에서 18번째로 건강한 주였으나, 2017년에는 10번째로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2017년 **Cuomo** 주지사는 내부 공기 청정법(**Clean Indoor Air Act**)을 확대하여 거의 모든 일터에서 전자 담배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 대중을 유해한 2차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흡연은 여전히 뉴욕주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28,000명의 성인 뉴욕 주민이 매년 흡연의 결과 사망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담배 및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미성년 흡연 인구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 전자 담배 흡연은 10.5 퍼센트에서 27.4 퍼센트로 늘어나 160 퍼센트 증가를 기록했으며, 절반 이상의 십대 청소년들이 전자 담배가 무해하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서 흡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는 젊은이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서비스부대의 의무감에 따르면, 성인 흡연자의 88 퍼센트가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했으며, 미성년자 담배 구매의 90 퍼센트가 18세에서 20세 사이에 벌어집니다. 법적 구매 연령을 21세로 조정하는 이번 법안은 미성년자들이 친구로부터 담배를 구할 수 없도록 막아서 청년들이 흡연을 시작하거나 중독될 가능성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